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12>

탐욕의 이데올로기에 뒷받침된 신자유주의의 현대경제학은 미국월가의 금융시장 파탄과 함께 이미 그 지적 기반이 붕괴했다고 할 수 있다. 탐욕에 대신하는 불교사상을 새로운 경제학 속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하느냐, 바꿔 말하면 소욕지족(少欲知足)을 강조하는 불교사상 중에서 '자족의 경제학'을 어떻게 주장해 나가느냐,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새로운 경제학의 방향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제창된 불교경제 혹은 불교경제학은 대충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사원(사찰, 교단)의 경영으로서의 불교경제이고, 둘째는 인식론으로서의 불교경제(학)이며, 셋째는 실천론으로서의 불교경제(학), 넷째로 주류 경제학에 대신하는 새로운 현대경제학으로서의 불교경제(학)이다.

이중에서 먼저, 사찰(寺)의 경영 혹은 경제로서의 불교경제는 필자의 고찰로부터 논외로 제외하고자 한다. 사찰특유의 경영이나 출가 승려의 일상적인 수행생활 특히 선사(禪寺)에서의 검소한 생활경제, 그것은 그 나름대로 오늘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좁은 조직 혹은 지역에 한정된 미시적 경제행위 보다도 더 넓은 사회, 국가 혹은 지구규모의 거시경제를 대상으로 고찰해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선 '인식론으로서의 불교경제(학)'이란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그 대표적인 주장자로서 고바타 하루오(難波田 春夫) 前 와세다대학교 교수를 들 수 있다. 고바타 논점의 특색은 공(空)사상에 기반을

둔 경제인식론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독자적인 불교경제학은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제에 관한 불교적 입장은 모든 경제학의 설명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를 공(空)의 원리에 의해 더욱 깊은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불교경제학이라 불리워지는 것과 같은, 특별한 다른 경제학과는 상이한 경제의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는 듯한, 그런 독특한 경제학은 불교적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와 경제학은 연계되지 않으면서도, 불교적 입장은, 모든 경제학에 더욱 깊은 근거를 부여해, 보다 깊은 의미를 갖게 한다. (중략) 결국 불교적 입장은 기존의 많은 경제학의 이론 외에 이것들과 버금가는 별개의 경제학을 제창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경제학에 보다 깊은 불교적 의미와 근거를 부여한다는 형식으로 경제학과 연계시킨다."

그러면 공(空)의 원리, 사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연기관(緣起觀)을 의미하고 있다.

고바타에 따르면 연기관 혹은 공관이 되는 것은 상호율(相互律) 즉, 'A는 비(非)A에 의해 비A는 A에 의해서만 인간으로서 현실(現實)에서 실제(實在)한다'고 하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실제 논리를 가지고 실재를 관(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깊은 근거로 삼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동률(自動律): 'A는 A이지 비A는 아니다'는 사유의 논리를 실제의 논리로 깊이 믿었던 시대가 근대화인데, 이것으로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다. 자동률이라는 사유의 논

상호율 무시한 경제이익은 존재할 수 없어

잘못된 자유경쟁은 돈벌기 능력경쟁... 욕망 충족만 추구

리를 원리로 하는 근대가 상호율이라는 실제의 논리를 원리로 하는 새로운 다음 시대로 이행해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가 바로 현대사회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자동률 또는 상호율의 어느 쪽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실의 인식이나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고바타에 따르면, 자동률에 대응한 근대사회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①A는 A이고 비(非)A는 아니다, 라는 것은 '나는 나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더우기 무엇을 하든, 당신 몇대론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유사회 예전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번뇌망상으로부터의 해탈이 아니라 거꾸로 번뇌망상에서 제멋대로의 해방, 자유방종화라 할 수 있다.

② '나는 나이다'라고 해 제멋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 돈(金)이 필요해진다. 개인책임의 자유경쟁은 돈벌기 능력의 경쟁이 돼, 거역할 수 없는 경제민주주의의 노선으로 질주하게 된다. 여기서는 돈이라고 하는 본래 수단인 것이 목적으로 전환, 오로지 경제 논리에 따라 욕망의 충족을 더욱 추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잘못된 결과가 자원·에너지의 낭비이며, 폐기물의 대량발생, 공기나 물의 오염에 따른 환경파괴가 따르게 된 것이다. 고바타는 이것을 '근대사회의 패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다른 한편의 불교적 입장이라고 할 '상호율'에 기반을 둔 경제행위나 경제생활이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은 자타불이(自他本來一如) 혹은 자타불이(自他不二)라는 공(空)사상의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참된 이익은 불이(不二) 혹은 하나

(一如)라는 것, 즉 자리(自利)의 근거는 타리(他利)에 있고 타리의 근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생산자 쌀값과 소비자쌀값을 들고 있다.

농민이 생산자 쌀값을 인상하면 그 결과, 소비자 쌀값이 상승한다든지 도시민의 생계비는 증대하고 노동자임금이 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경제전체의 비용 상승을 초래해 모든 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은 종래의 경제학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이 기존경제학의 설명에 불교의 입장에서 어떠한 깊은 근거가 성립되고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인가. 고바타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불교적 입장에서라면 농민의 존재근거는 농민 가운데에는 존재하지 않고 농민이외에, 즉 국민전체 속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농민들이 나의 입장, 농민만의 입장에 서서 농민만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깊이 믿고서, 이에 고집해 자기들이 농사 지은 쌀을 비싸게 팔게 되면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그들만의 이익이 실현될 수는 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농민이 구입하는 상품 값이 오름에 따라서, 생산자 쌀값인상에 따른 농민만의 이익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만다. 결국 일체가 공(空)이 돼 자기 자신만의 이익추구의 근거가 사회의 다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실증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한 생산자만의 이익은 본래 존재할 수 없다. 요컨대 자타(自他)의 이익은 불이(不二)이며 일여(一如), 바로 그것이라는 뜻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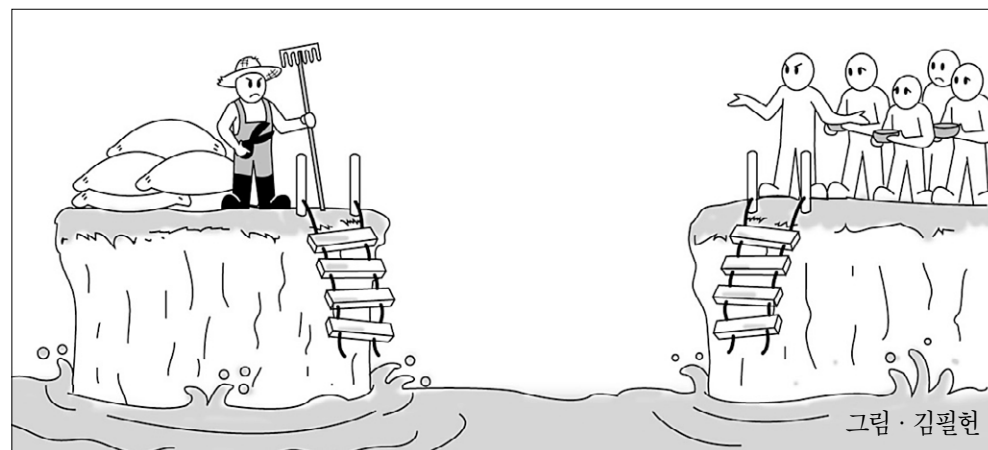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⑫ 코칭과 미래의 자신

내가 전문코치 자격으로 간여하고 있는 한국리더십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리더십과정, 코치 양성과정과 함께 '창의적 교수법'이라는 좋은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창의적 교수법을 강의하는 전문가들 중에 교사 출신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수하는 '자기 중심적 요소(Me Centered)'가 강한 반면, 코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개입시키는 일은 가급적 삼가고 '상대방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한다'(You Centered)는 그러한 큰 차이가 있다. 더 부연하면 티칭, 컨설팅, 멘토링 등은 상대방 고객과 함께 솔루션을 찾아가는 'Doing'에 관한 접근이고, 코칭은 상대방의 존재에 접촉하는 'Being'에 관한 접근이다.

따라서 코칭에서 강조하는 바, 따뜻한 마음에 바탕을 둔 경청, 질문 등 기술적 요소들은 얼마든지 티칭, 컨설팅 등에 접목하여 그 본래 목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에서 실시하는 멘토링은 100% 코칭 기술을 접목하여 시행한다. 기업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신입사원의 이직률인데, 대기업을 표본으로 한 조사를 보면 신입사원의 1년 내 이직률은 2007년 27%를 상회하여 기업의 채용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다수의 기업들이 사

허달의 불교와 코칭

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그 중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직률을 거의 0%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다.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서 코칭은 상담의학(相談醫學)과 비견되기도 한다. 공감적 반응의 기법을 활용함에 있어 코칭과 상담 의학은 거의 기술적으로 근사하다. 다만, 상담 의학이 고객의 과거를 탐험해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트로머(Trauma)를 제거하는 데 주력함에 비해, 코칭은 상상력을 활성화해 고객의 미래를 확장하고 긍정적이 되도록 지지함으로써 과거의 트로머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이를 문제 해결의 자원(Resource)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이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코칭의 과정에서 고객의 미래를 확장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미래의 자신(Future Self)을 투영(Projection)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를 명상 속에 몰입하게 해 20~30년 뒤의 상상 속의 자신과 만나도록 도와준다. 원하는 바를 이미 이룩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보고 그 느낌을 성찰한 뒤에 그 자리에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면 현재, 과거의 여러 당면 문제가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 것을 깨닫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내면의 확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재의 시점으로 되돌아 오도록 돕는 것이다.

약학박사 학위 과정의 최종 단계에 있던 한 여성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코칭 받았다고 상의해온 적이 있다. 학위 논문은 곧 통과되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하소연이었다. 남들 다 하는 연애도 한 번 못 해보고, 우왕야 하는 것만자기 안고 동창회 나오는 친구를 부러운 것도 참고 박사학위에 매달렸는데, 이제

미래의 자신과 만나 현재 당면한 문제 풀어

끝날 때가 다가오니 회의가 든다는 것이었다. 학교에 남아 교수들, 대학원생들과 씨름하는 생활이 계속되는 것도 신물이 나고, 설사 제약회사 연구실에 취직돼 신약개발팀에 합류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임상(臨床)은 의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약학박사라 해봐야 심부름꾼에 지나지 못할 것이라는 푸념이었다.

코칭의 처음 몇 단계를 거쳐, 그녀는 결국 자신의 20년 후 Future Self를 투영해 보고, 그 모습에 '엄마마늘연구왕자'라는 긴 이름을 지어 붙이는 것을 계기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자신을 가두었던 의기소침 상자(Box)에서 탈출해 사랑 받는 마누라,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엄마, 그리고 인류에 공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약연구자가 되는 꿈을 모두 함께 이루겠다고 의욕적인 진로를 설정했다.

"생각의 속도로 날기 위해서는, 그곳이 어디든 그때는 자신이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을 읽어보면 성자의 은유인 치앙 갈매기가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에게 나는 법의 극의(極意)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비결은 자신의 본성이 이미 완전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함을 깨닫는 일이었다. 우리의 자성이 이미 완전하며 모두가 이미 부처임을 굳게 믿는 것이 불자에게 요구되는 오직 하나의 믿음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불교노인요양원 삼천사·인덕원이 어르신을 모십니다

불교전문노인요양원 인덕원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해동의 영산으로 불리는 북한산 자락에 기존 건물을 신개축하여 국내 최대의 300명상 규모와 최첨단 시설, one-stop 토탈케어서비스를 갖춘 노인요양종합복지타운을 세워 어르신을 모십니다.

인덕원은 분야별 전문교육과 불심을 두루 갖춘 1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케어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입소어르신을 부처님처럼, 내 부모님처럼 섬깁니다.

인덕원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보살행으로 실천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아픔은 나누고, 행복을 만드는 불교전문노인요양원입니다.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받으신 분

■입소문의 : 02)385-8205, 02)3156-7500

삼천사·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0(은평뉴타운지역 내)
www.idw.or.kr